

“1박2일 경비에 최소 50만원”...여행 물가 ‘고공행진’

나들이 시즌...숙박·외식비 등 급등 지난달 광주 삼겹살 4.0%·회 9.6% ↑ 콘도·호텔 등 숙박요금도 크게 올라 “의류·신발 비용도 커져 외출 부담”

“5월에는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물가가 너무 치솟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도 중요한 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선물을 간소화하고 긴 여행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가볍게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들과 여수 여행을 계획하던 강자신(49)씨는 최근 속소를 예약하려다 결제를 망설였다. 황금연휴를 피해 낱자를 잡았음에도 4인 가족 호텔 숙박비가 1박 25~3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저렴한 호텔이나 펜션을 찾아봐도 하루에 최소 15~20만원을 숙박요금으로 계산해야 했다.

또 여행 일정에 포함된 크루즈 투어 비용은 대인 기준 1인당 2만5000원, 해상 케이블카 티켓은 1만7000원 등으로, 여

기에 식사비와 주유비 등을 더하면 1박 2일의 짧은 일정에도 50~60만원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 셈이다.

강씨는 “오랜만에 중·고등학생 아이들과 여행을 계획했는데 숙박부터 외식까지 물가가 너무 올라 부담이 크다”며 “5월 초에 길게 여행을 가려다가 비용 부담에 여행 계획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외출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숙박비·외식비·문화비 등 각종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라 짧은 여행이나 근교 나들이조차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지역의 음식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외식 인기메뉴 중 하나인 삼겹살은 4.0%, 특별한 날 분위기를 내기 좋은 스테이크는 2.2%, 여행지에서 종종 찾는 생선회는 9.6% 각각 상승했다.

광주지역 음식 서비스 물가는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7.1% 급등한 데 이어 △2023년 6.3% △2024년 3.4% 등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2022년 7.8% △2023년 4.9%, 2024년 3.3%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에 꼭 필요한 외식 비용이 크게 늘면서 가벼운 외출마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다.

1박2일 이상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박요금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전국 기준 숙박 서비스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5% 증가했다. 특히 콘도이용료는 무려 18.2% 상승했으며, 호텔숙박료(1.8%), 여관숙박료(1.0%) 등이 뒤를 이었다. 숙박서비스 물가 역시 2022년 전년 대비 5.2% 급등한 이후, 2023년(5.5%), 2024년(2.8%)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의류 및 신발 구매 비용 증가도 외출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역 의류 및 신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특히 남

성 의류가 3.6%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여성 의류는 2.8%, 신발은 2.3%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은 남성의류 3.4%, 여성 의류 2.8%, 신발 2.3%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직장인 여모(27)씨는 “다가오는 연휴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나들이 기분을 내기 위해 새 옷을 사려다가 가격을 보고 결국 원피스 하나만 구매했다. 상의·하의 합쳐서 3~4개를 골랐는데

15만원이 훌쩍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여행 경비만으로도 이번 달은 저축은 어려운데, 의류 등 부가적인 지출까지 늘어나니 부담이 크다.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평소와 최대한 아끼려다 보니 덩달아 외출이 망설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를 통해 방문 수리 서비스를 예약한 'AI 구독클럽'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 제공

10개 품목 24개 증상 미리 진단

삼성전자가 구독 중인 가전 제품에 대한 이상 징후 발생 시 고객에게 전화로 안내하고 방문 수리 접수까지 해주는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로 가전 구독 케어 사업을 강화한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AI가 원격진단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전 제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발송한 후 진단 내용을 우선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제품 구매부터 사용, 관리, 수리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구독에서도 'AI가전+삼성' 공식을 굳히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진행하는 'AI 사전 케어 알림'은 △AI 진단 내용 설명 △기기 상태 확인 △방문 수리 예약까지 지원해준다.

시간이 부족한 고객은 번거롭게 직접

A/S를 접수할 필요 없이 더욱 유용하다.

특히, 제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이상 온도 변화가 감지되거나 에어컨의 냉매가 부족할 경우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증상을 미리 발견해 큰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구독 대상 제품 중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로봇청소기, 에어드레서 등 10개 품목에 도입됐다. 에어컨 냉매 부족 예상, 냉장실 이상 고온 감지, 세탁기 통신 모듈 점검 등 24개의 다양한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AI 사전 케어 알림'을 구독 케어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별도 요금 없이 제공하며, 향후 대상 품목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증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전남 농업면세유 부정 유통 '전국 33%'

작년 적발량 25kl 전년비 47% ↑ 위반물량 급증... 전담인력 '한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위반 물량'이 전국 위반 물량의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품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건, 위반 물량은 25kl(2만5000l), 위반 금액은 2600만원어치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동일했으나 위반 물량(17→25kl)은 47%, 위반 금액(2000만원→2600만원)은 30%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 물량은 전국 위반 물량

(75kl)의 약 33%를 차지했으며 위반 금액도 전국(7300만원)의 35%를 넘어섰다. 반면 적발건수는 전국(83건)의 약 11% 수준에 그쳐, 건수 대비 위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품원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적발내역을 관할 세무서장 및 관리 중앙회장·조합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적발 사항에 따라 가산세 추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농업인 등이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제재가 취해진다.

석유 판매업자의 '환급·공제세액 부당 초과 신청' 등 위반 사항 적발 시에도 동

일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면세유 판매업소 지정이 취소(5년간)된다. 관리기관이 '면세유 구입 카드를 거짓(부정) 발급'할 경우에도 감면세액의 40%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농품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사용 건수는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각 시군별로 1~2명에 불과해 수만명에 달하는 농업인을 모두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인력 내에서 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면세유 배정 및 농기구 등록·폐기 등을 맡은 농협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 및 농업인들의 도덕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광주경총, 5월 금요조찬 포럼 “국제 이슈 중점”

‘트럼프 혼돈의 시대’ 등 다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 등 다양한 주제의 5월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미래에셋 WM혁신본부 상무인 서상영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 주제로 5월 첫 강연을 연

다.

이어 16일에는 중국연달그룹 특별고문인 조평규 박사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오는 23일에는 대북전략컨설팅 김동식 대표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대남공작’을 주제로, 30일에는 한국협업진흥회 회장인 윤은기 박사가 ‘조선과 초리스크 시대-협업으로 창조하라’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4월 포럼 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전 세계가 관세정책 여파 등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시점 속에서 미국 수출과 유럽 진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면 5월 포럼은 국내 조기 대선과 계속되는 혼돈의 트럼프 행정부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주제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기아, 독일 ‘레드 닷 어워드’ 7관왕

현대차·기아가 ‘2025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6개 등 7관왕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다.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

셉트 부문에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자리다.

기아 EV3는 올해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EV3는 지난 16일 ‘세계 올해의 차’에 이어 이번에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기아는 2022년 EV6, 2024년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최우수상을 받으며 전용 전기차 모델의 디자인 경쟁력을 지속 입증하고 있다는 평이다.

현대차의 경우 △아이오닉9 △디올 뉴 팰리세이드 △스마트 택시 표시등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E-pit(이-피트) 초고속 충전기 △픽셀 비상망치 앤 커터 등 6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박소영 기자